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82회 정기공연 <3cm>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07.01. ~ 2025.09.06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 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p> <p>활동내용 : 1학기 종강 이후, 여름 정기공연 작품으로 <3cm>를 선정하고, 약 2개월간의 집중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공연을 완성하였다. <3cm>는 인물 간의 미세한 거리와 감정의 차이가 관계 전반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내는지를 섬세하게 포착하는 현대극으로, 일상적인 대사와 장면 속에 축적되는 감정의 흐름과 긴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이번 정기공연은 특히 작품이 지닌 정서와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대본 리딩 단계에서는 인물 간 관계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짚어내는 데 집중하였고, 이후 감정 훈련과 블로킹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동작을 배제한 절제된 연기를 통해 작품의 톤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연출부는 작품의 흐름과 리듬을 해치지 않도록 인물 간 거리와 시선의 배치를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하였다. 과장된 연출보다는 침묵과 여백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장면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객이 인물의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무대팀은 이번 공연의 핵심 요소로서, 작품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무대 미술에 특히 공을 들였다. 단순한 기능적 무대가 아니라, 인물 간의 거리와 관계가 공간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색감과 구조, 배치를 세심하게 설계하였다. 화실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맞추어 무대는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미적으로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지향하였으며, 관객이 극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에 맞추어 조명·음향팀 또한 무대 미술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장면별 분위기와 감정선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큐를 조정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p> <p>이번 정기공연의 준비 과정 중에는 작품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적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원작자인 조태준 교수가 직접 공연 준비 현장을 방문하여 작품의 창작 배경과 인물 설정, 텍스트에 담긴 의도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당 특강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 창작자로서의 관점과 해석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큰 의미를 지녔다. 홍보팀은 공연의 분위기와 무대 미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포스터 디자인과 SNS 홍보에 집중하였으며, 교내 홍보물 배포를 통해 관객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공연 전 전체 리허설과 피드백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p> <p>소감 : <3cm> 정기공연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보다 인물 사이의 미세한 감정 변화와 거리감을 무대 위에서 설득력 있게 구현해야 하는 작품이었기에, 배우와 스태프 모두에게 높은 집중력과</p>		

섬세함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연습 과정 내내 작은 동작 하나, 시선의 방향, 대사의 호흡 하나가 장면의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구성원들은 연극이 단순히 극적인 장면의 연속이 아니라 디테일의 축적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깊이 체감하게 되었다. 특히 소수정예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지는 과정이었으며, 서로의 작업을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작품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무대 미술, 조명, 연기 어느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하나의 분위기와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공연을 마친 뒤 관객들로부터 “잔잔하지만 오래 남는다”,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몰입하게 된다”는 반응을 들으며, 작품이 의도한 정서가 관객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피드백은 구성원들에게 큰 보람으로 남았으며, 동시에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기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3cm> 정기공연은 단순히 한 편의 공연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넘어, 경희극회가 추구하는 연극적 방향성과 창작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구성원 모두에게 섬세함과 집중, 그리고 협업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게 한 경험으로 남았으며, 이후의 공연 활동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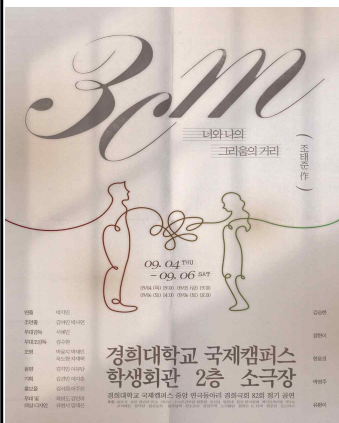
기타 : 관객수 [1회차 85명, 2회차 78명, 3회차 98명]



활동사진
(3매 이상)

무대 사진

연습 사진



포스터 사진

작가 특강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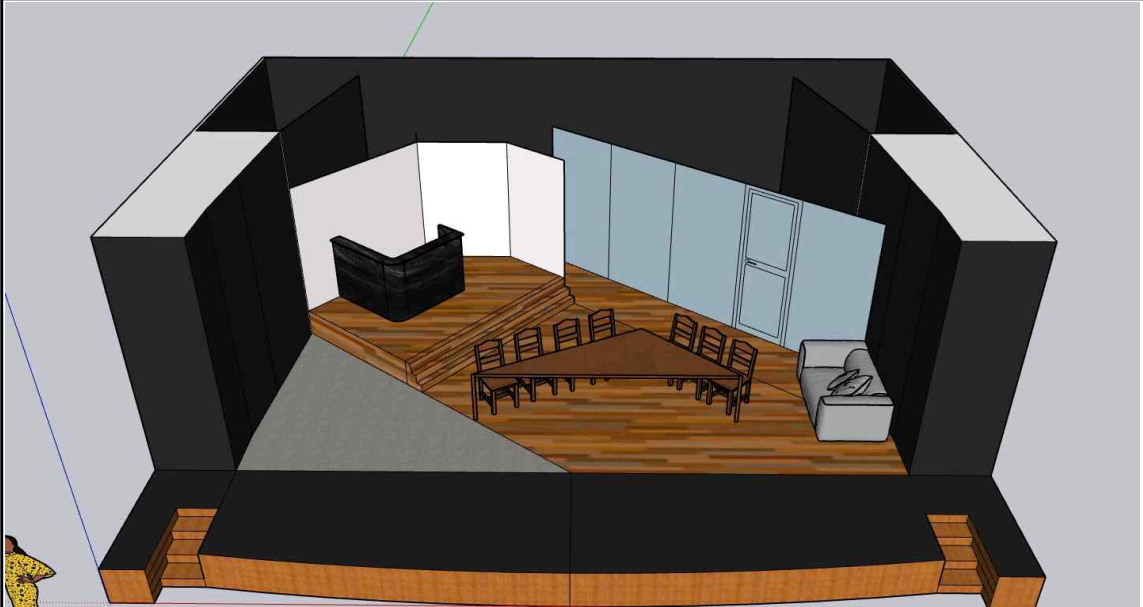
대표학생 : 차재혁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1회 프로젝트 워크샵 <완벽한 타인>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07.01. ~ 2025.09.13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 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p> <p>활동내용 : 2025년 경희극회는 정기공연 중심의 활동 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성원 개인의 창작 역량 강화와 소규모 공연 제작 경험을 목표로 '1회 프로젝트 워크샵 공연' <완벽한 타인>을 기획·진행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단기간 집중 창작을 통해 공연 제작 전반의 흐름을 경험하고,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보다 능동적으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험적 성격의 활동이었다. <완벽한 타인>은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위선과 진실, 관계의 균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원작 영화를 연극적 흐름에 맞게 각색한 작품으로, 인물 간의 대사와 미묘한 심리 변화가 작품의 핵심을 이루는 작품이다. 특히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대사와 반응만으로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배우 개인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모두의 호흡과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작품이었다. 또한, 정기공연에서 선보이기 힘든 실험적인 무대와 연출적 구성을 다루는 것이 기획 의도였으므로 이에 맞게 무대 디자인, 음향, 조명 등 연극을 구성하는 많은 분야에서 실험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p> <p>준비 과정은 대본 리딩을 시작으로 인물 분석, 관계 설정, 감정선 구축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리딩 단계에서는 인물 간의 숨겨진 관계와 대사의 이면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각 장면마다 인물의 감정 변화와 행동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감정 훈련과 즉흥 연습을 통해 대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선과 호흡, 침묵을 활용해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는 연습을 병행하였다.</p> <p>무대 구성은 최소한의 소품과 간결한 동선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객의 시선이 배우와 대사에 자연스럽게 집중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기존과 다르게 소극장 무대를 넓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사선의 형태로 넓고 깊게 제작하였다. 이에 맞추어 조명은 무대의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였으며, 확장된 무대 구조가 극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구성하였다.</p> <p>공연 준비와 더불어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포스터 디자인과 SNS 홍보를 통해 프로젝트 공연의 취지와 작품의 특징을 알렸으며, 소규모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객석 운영과 공연 안내에 신경을 기울였다.</p> <p>소감 : 이번 프로젝트 워크샵 공연은 짧은 기간 안에 공연을 완성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배우들은 대사와 감정에 집중한 연습을 통해, 연기의 기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소규모 프로젝트라는 특성상, 연출·배우·기술 스태프 간의 소통이 더욱 밀도</p>		

있게 이루어졌으며, 의견 교환과 피드백 과정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연극 제작이 단순한 개인 작업이 아니라, 끊임없는 협의와 조율을 통해 완성되는 공동 작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은 정기공연과는 다른 형태의 창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경희극회의 활동 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형 공연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다.

기타 : 관객수 [1회차 130명, 2회차 102명, 3회차 142명]



무대 디자인

활동사진
(3매 이상)



포스터



공연 사진



리허설



연습 사진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차재혁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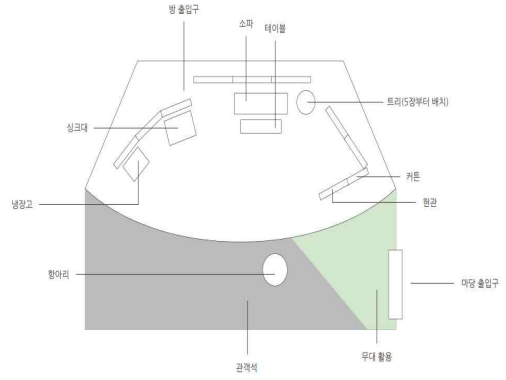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5 2학기 신입부원 워크샵 공연 <소심한 가족>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10.01. ~ 2025.12.08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 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p> <p>활동내용 : 신입 부원을 중심으로 한 워크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심한 가족> 공연을 제작하였다. 이번 공연은 신입 부원들이 연극의 기본기를 실제 무대 환경에서 적용해보고, 공연 제작 전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습형 프로젝트 형태의 신입 부원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단순한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연습 과정과 제작 과정 자체에 신입 부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앞으로의 인수인계와 색다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조명, 음향, 의상, 소품, 무대, 분장, 연출, 연기 등 연극의 여러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의 공연이 완성되기까지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가족애와 코미디적 요소를 포함한 작품을 통해 신입 부원들이 과장된 연기가 아닌 상황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인물로서 무대에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또한 정기공연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귀신과 판타지라는 실험적인 요소들을 다룬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무대 경험이 없는 부원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희극회가 지향해 온 열린 무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로 삼았다. 대본 리딩과 인물 관계도 작성, 감정의 흐름 정리 등을 통해 각자 맡은 인물의 대사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물이 행동하는 이유를 스스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즉흥 연기, 장면 창작, 발성과 호흡, 신체 훈련 등을 통해 다양한 연습 방법으로 연극에 다가가는 활동 역시 진행하였다. 2개월 간 정기 연습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부원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멘토 역할을 맡아 신입 부원들이 실무적인 경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3회의 공연을 통해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p> <p>소감 : 이번 워크샵 공연은 신입 부원들이 연극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초 단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무대에 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던 부원들도 반복된 연습과 협업을 통해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스스로의 변화를 체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연기 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의 준비와 공연 제작, 운영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연극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노력으로 오나성되는 예술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은 신입 부원들이 앞으로의 극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p>		

기타 : 관객수 [1회차 75명, 2회차 68명, 3회차 80명]



연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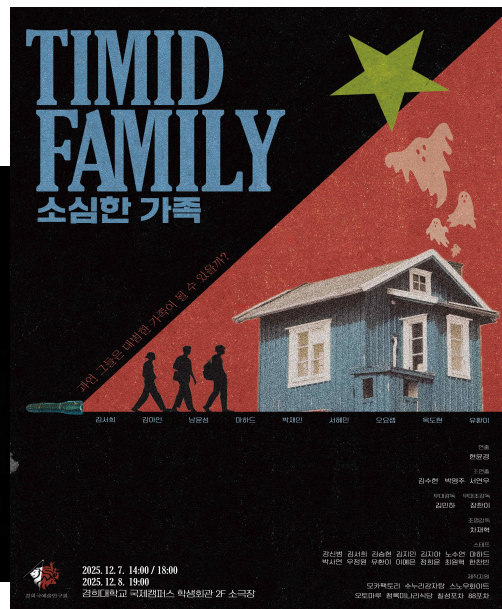


무대 시안

활동사진
(3매 이상)



리허설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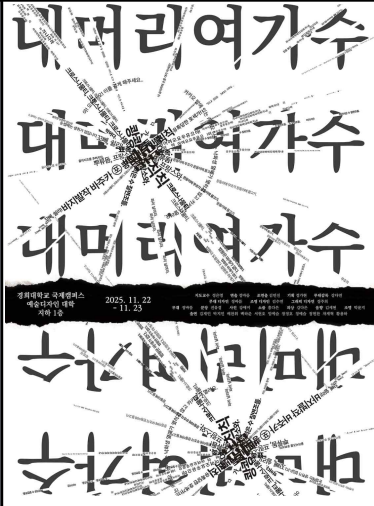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차재혁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연극 관람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11.22. / 2025.12.21.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 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A&D홀, 명동예술극장</p> <p>활동내용 : 연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공연 양식을 경험하기 위해 두 편의 공연을 단체 관람하였다. 첫 번째로, 우리 학교 연극영화학과의 공연 <대머리 여가수>를 관람하였다. 본 작품은 부조리극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통적인 서사구조와 인과관계를 해체한 형식이 특징적이었다. 이를 통해 언어의 반복과 단절, 비논리적인 상황 전개가 어떻게 무대 위에서 의미를 형성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 공연에는 경희극회에서 활동한 이후 진로를 찾아 연극영화학과로 복수전공한 부원들이 제작과 공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회 활동이 전공과 진로로 이어지는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상, 무대 구성 등 제작 전반에서 전공자들의 접근 방법과 실무적인 노하우를 관찰하며 실제 공연 제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셰익스피어의 <태풍>을 관람하였다. 고전 희곡을 현대 무대 언어로 재해석한 공연을 통해, 원작의 서사와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연출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전 작품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대의 관객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음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p> <p>소감 : <대머리 여가수> 관람을 통해 기존에 익숙했던 사실주의 연극과는 전혀 다른 연극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대사와 반복되는 상황이 오히려 현대 사회의 소통 부재와 인간 관계의 공허함을 드러낸다는 주제의식 속에서, 연극이 반드시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구조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극회 출신 선배들이 전공자로서 무대 위 배우와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동아리 활동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진로 탐색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하였다. <태풍> 관람은 고전이 왜 아직도 공연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든 작품이었다. 수백 년 전의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용서, 화해라는 주제가 현대 사회와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으며 이를 현대적인 무대 언어로 표현한 연출을 통해 연극의 동시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전 작품 역시 해석과 관점에 따라 현재의 관객과 충분히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상을 받았다.</p> <p>기타 : 이번 공연 관람 활동은 서로 다른 연극 양식을 비교하며 연극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실험성이 짙은 부조리극을 통해 형식과 언어의 실험적 사용을, 고전극을 통해 연극의 지속성과 현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경희극회 활동에서</p>		

작품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에 있어 보다 넓은 시각을 갖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극영화학과 <대머리 여가수> 관람

활동사진
(3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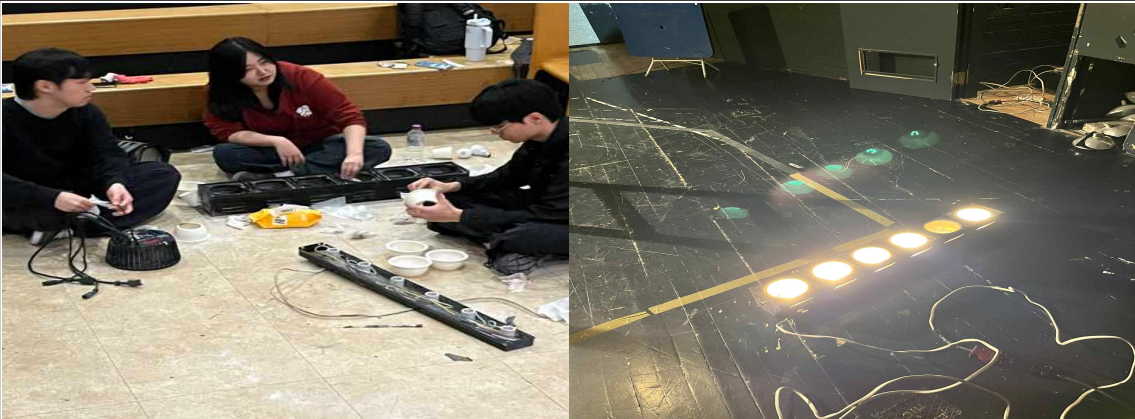
국립극단 <태풍> 관람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차재혁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장비 점검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12.20.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 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p> <p>활동내용 : 원활한 공연 진행과 안전한 연습 환경 조성을 위해 조명 장비 점검 및 소극장 정비 활동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조명 기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램프 교체, 케이블 정리, 콘솔 및 디머의 연결 상태 확인 등 기본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명 각도 재설정, DMX 신호 테스트 등을 통해 실제 공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였다. 소극장 내부 정비로는 무대와 객석 주변 정리, 불필요한 장비 및 소품 정돈 등 공간 활용을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원들이 직접 장비를 다루며 극회가 사용하는 소극장의 구조와 기술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하였다.</p> <p>소감 : 공연이 무대 위의 연기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과 공간 관리 위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조명 장비를 직접 점검하고 세팅하는 과정에서, 조명의 작은 변화가 무대 분위기와 장면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공동 작업을 통해 부원들 간의 협력과 책임감이 강화되었으며, 극회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이러한 기초 작업의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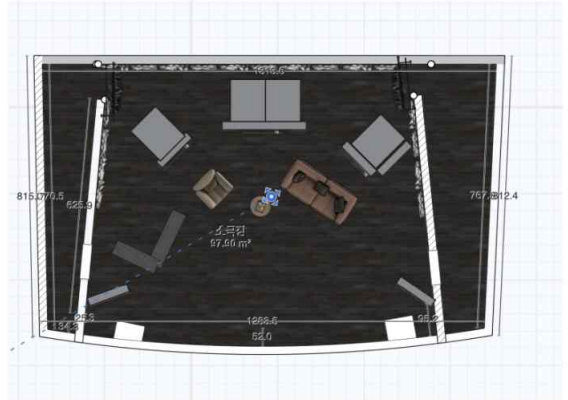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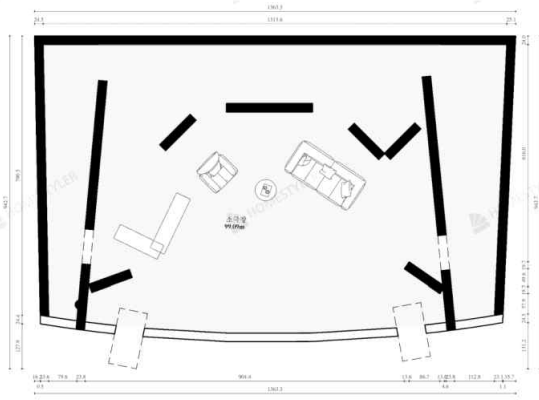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차재혁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83회 정기공연 <아트>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12.20. ~ 현재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 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p> <p>활동내용 : 83회 정기공연으로 <아트>를 준비 중에 있다. 본 공연은 개강 이후 3월 둘째 주 공연을 목표로 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공연 준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아트>는 세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관계의 균열과 가치관의 차이를 다루는 희곡으로, 배우 간의 호흡과 대사 전달력이 중요한 작품이다. 이에 따라 작품 분석과 연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본 리딩과 장면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인물 간 관계와 감정의 흐름을 바탕으로 블로킹 연습 단계까지 진행하였다. 배우들의 동선과 무대 활용을 정리하며, 장면의 리듬과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공연에 필요한 소품과 의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무대와 조명 구성 역시 소극장 환경에 맞추어 기초 구상을 완료하였다. 향후 연습에서는 장면의 밀도를 높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듬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p> <p>소감 : 정기공연 준비 과정은 단순한 상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공동 작업의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특히 <아트>는 인물 간의 미묘한 감정 변화가 중요한 작품이기에, 블로킹 단계에서도 배우들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이었다. 연습을 통해 각자의 해석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극이 개인의 표현이 아닌 집단적 창작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p> <p>기타 : 2/7 조명 설치, 2/19 무대 설치, 3/12 ~ 3/14 공연 예정</p>		

무대 구조 및 가구 배치 - 평면도



활동사진
(3매 이상)

무대 디자인 평면도



대본 리딩



연습 사진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차재혁 (인)